

• 출애굽기 20:8-11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반할 경우 엄히 다스리라 명하실 정도로 제4계명을 중시하셨습니다(출 31:15). 이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살아갑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어원 ‘샤바트’의 뜻처럼 하나님 이 허락하신 ‘휴식, 멈춤’을 통해 창조의 순리, 원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출 20:11).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란 책은 참된 안식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 유일합니다. 장소나 대상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공간의 일’로 살아갑니다.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평수, 어떤 자동차를 탈지 결정하고 소유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시간의 일’을 일깨우십니다.

안식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시간입니다. ‘원다’는 것은 생계와 생업을 필두로 주로 해 오던 모든 일, 생각과 삶의 방식, 의식의 흐름들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 떠밀리던 삶에서 멈춰 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적법한가, 영생에 비추어 가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멈추면 도태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시간을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감수할 손해가 빠르게 계산됩니다. 눈앞의 인생, 공간의 일만 바라보는 이에게는 이 쉽기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경험한 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 ① 내 삶의 속도는 몇 km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 ② 너무 빨라서 보지 못하는 것,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